

우리 나라 임신부, 남아 선호 여전

직장 대부분 스스로 포기



**74.5%의 임신부가
임신 때문에 직장을
포기했고, 직장생활을
계속하겠다는 응답자는
18%에 그쳤다.**

◀ 임신부들은 임신 중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딸보다 월등히 많다.

이유에 '본인'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람이 54.9%, '남편'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.7%, '직장의 규칙이나 분위기'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.5%, '부모나 서부모'라고 한 사람은 7.8%로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직장생활에 자신이 없거나, 직장의 경계하는 규칙과 분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드러났다.

남편으로 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라는 물음에는 비싸거나 실용적인 물건보다는 꽃, 변함없는 사랑, 둘만의 여행 등 로맨틱한 선물을 원했으며, 예쁜 임신복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주부도 많았다. 배가 나온 임신부들도 예쁜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남편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 갖고 있었다.

임신 중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은 72.7%가 '남편'이라고 말했고, 임신, 출산, 육아 상식

을 얻는 주요 매개는 87.9%가 잡지나 책이라고 응답했다. 특기할 점은 TV나 라디오라고 답한

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

다. 병원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48.5%가 '지리적 요인'을 지적했고, 30%가 '주위의 권유' 18.2%가 시설을 중시했다고 답했다. 또 '유명도'라고 응답한 임신부는 1.7%, '규모'라고 응답한

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.

한편 직장생활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3%가 직장 경력이 있으며 그 중 대다수인 74.5%의 임신부가 임신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고, 직장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자는 18%에 그쳤다. 한편 직장을 포기한 가장 큰

우리나라의 임신부들은 남아를 호하며, 대부분의 임신정보를 지나 책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사실은 지난 5, 6월 1회 존슨즈 베이비 교실에 가한 2백30명의 임신부들에게 문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. 응답의 학력은 73%가 대졸, 26.6%가 고졸로 고학력이었다.

'아들, 딸 중 원하는 성별은 엇인가'란 질문에 43.5%가 딸을 선호했으며, 딸을 선호하 임신부는 8.5%, 성별에 상관 없다는 사람이 47.8%였다. 리고 '현재 임신 중인 아기의 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'는 물음에 32.7%가 아들이라 생각했으며, 9.4%는 딸, 57%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.

한편 왜 아들 / 딸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응답으로 '남들이 그래'가 35.2%로 제일 많고, '태'으로 안다고 응답한 사람이 외로 많아 23.5%가 되었다. 음파 검사로 확실하게 안다는 람이 14.7%, '먹고 싶은 음'으로 안다는 사람이 13.2%로 나타났다.